

事務局	金 侑 貞 KIM YUJUNG	(一社)日韓経済協会 担当部長 青少年交流センター長
事務局	内 田 敏 明 UCHIDA TOSHIAKI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常務理事
事務局	須 藤 俊 SUDO SHUN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事業開拓部長
事務局	杉 原 景 SUGIHARA KEI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担当部長 日韓中小企業情報交流センター長
事務局	梶 山 智香子 KAJIYAMA CHIKAKO	(一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総務部
事務局	河 原 啓 太 KAWAHARA KEITA	(株)日刊工業新聞社 業務推進部

VIII. 의 사 록



1. 개회식

사회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이하 동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및 한일산업기술 페어 2019’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0명 모든 참가자가 회장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일경제협회 서석승입니다.

금일 회의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1번이 한국어, 2번이 일본어입니다. 잘 들리시는지 음향조정 한번 더 시도해 주시고요. 당연한 부탁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모드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국 단장님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한국측 단장이신 한일경제인협회 김 윤 회장이십니다. 다음은 일본측 단장이신 사사키 미끼오 단장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먼저 오늘 내빈축사를 해주실 일본 귀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입니다.

다음은 기조연설을 해주실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십니다. 다음은 한국측의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축사를 해주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십니다. 다음은 기조연설을 맡아주셨습니다. 손경식 CJ그룹 한국경총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특별강연을 해주실 유명환 前외교통상부장관이십니다.

이후부터는 양국 경제협회회장께서 공동의장을 맡아 주시겠고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이미 책자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식순에 따라서 양측단장님의 인사말씀을 경청하고 그 다음 기조연설을 경청하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최측인 한국측 단장 김 윤 회장님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 단장인사

김윤

한국측 대표단 단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일경제협회 회장 김 윤입니다. 먼저 이번 회의를 위해 멀리서 오신 사사키 미끼오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측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 나가미네 야스마사 특명전권대사님, 그리고 기조연설과 특별강연을 맡아주실 고가 노부유키 회장님, 손경식 회장님, 유명환 고문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한일경제인회의 및 한일산업기술페어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의미와 무게가 각별

합니다.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회의이니만큼 우리 경제인들의 사명감과 각오가 예년과 달리 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양국은 숙명적 이웃으로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세계시장에서 선의로 경쟁하면서 최대한의 협력을 통해 공존, 공영해야만 하고, 그리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 구인난과 취업난 등 공통의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소중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양국관계의 갈등과 경색이 안타깝고, 상호간 입장준중의 바탕 위에서 대화와 협력이 간절합니다.

경제는 생산, 분배, 소비로 이루어지는 유기체이며, 한일간 수평분업은 부품, 소재, 장비, 제품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양국 기업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며 이념이 아닌 현실, 거시와 더불어 미시적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재정에 기여함으로써 미래에 공헌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양국은 이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선의로 경쟁하며 최대 협력을 통하여 공존, 공영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인식과 중대한 사명을 한일경제인들은 서로가 공유하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통과 교류, 협력의 창구로 활약을 할 것입니다.

비단 교육과 투자, 상호관광 등 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풀뿌리 차원의 지역간 미래 세대간의 소통 교류도 무척 중요합니다. 공통의 관심사항을 찾아내고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선순환이 모든 분야에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내년에는 도쿄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일본의 레이와신세대를 계기로 한일우호증진을 기대합니다.

지난해에는 기념비적인 제50회 동경 경제인회의를 함께 축하하였고, 금번 제51회 회의로 다시 새로운 50년의 설계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양국관계가 복원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김 윤 한국측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일본측 단장님인 사사키 미끼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사키 미끼오 일본측 대표단 단장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님, 그리고 한국측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또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님, 또한 일본측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제51회 한일한일한경제인회의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본측을 대표해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일한일한경제인회의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4년 후인 1969년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51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지금까지 한번

도 중단되는 일없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양국경제에 많은 우리 선배님들의 열의와 그리고 또 노력의 성과이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하고, 우리 양국의 경제인들은 그동안 구축해온 양호한 관계를 결코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일양국의 경제관계를 되돌아보면 슬라이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무역액은 1965년 당시 2억 달러였는데, 작년에는 850억 달러로, 그리고 최근 양국 국민간 왕래는 본격적인 문화교류 촉진의 계기가 된 1998년에 전략적 파트너십 선언 그 당시 약 290만 명에서 작년에는 1,050만명으로 매우 속도를 붙여서 1,050만명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는 눈부시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도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기념비적인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는 그로부터 1년 수개월 동안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크게 흔들려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장기화되고, 또 미중의 통상무역마찰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높아지고 한일의 에너지자원, 기초화학품 수입에도 큰 리스크를 주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대화는 작년부터 세 차례 열렸는데 교착상태에서 빠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양국의 정치 외교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자치단체간의 문화, 스포츠 교류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안타깝게도 한일관계는 긴장의 연속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이 서로 구축해온 상호 호혜적인 양호한 경제관계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하에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 경제인들은 이 회의에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한 일의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현실을 즉시하면서 그리고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회의의 주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 한일협력'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 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국측의 오석송 চে어맨님, 그리고 일본측의 아소 চে어맨님께서도 그 개요를 이후에 보고해 주실 건데요. 두 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세션에서 예정되어 있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그리고 제2세션에서는 두 번째 관점 '한일공통과제의 실현'이 주제입니다. 저희는 미래 지향적인 원점에 다시 서기 위해서 미래를 내다본 공통과제와 협력방안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양 정부의 대화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편 작년 가을 이후 양국의 경제계는 비교적 침착하게 기업간의 연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은 대단히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일본계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 한국 소비자, 그리고 한국에 일본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폭넓게 큰 데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관광업에 심각한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한일 서로 비즈니스 관계자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입니다.

다른 한편 한국여론 중에도 한일관계의 재구축과 신뢰 회복을 바라는 침착한 의견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은 매우 든든한 목소리입니다.

저는 경제와 정치 외교가 차량의 두 바퀴라는 점, 그리고 양국간에서 정치 외교관계의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하고 계신 일본기업은 약 1,070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기여도는 서울재팬클럽에 가입한 약 4백개사만 보더라도 약 5만명의 고용기여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투자도 크게 확대되어서 1965년 이후 작년까지 누계는 약 330억 달러까지 달했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는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비즈니스 입장에서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일협업의 추진을 통한 공동이익 확대 그리고 한일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협력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앞으로도 한국 경제인 여러분과 공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양국의 제3국에서의 협업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이 경제인회의 때부터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의 확대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한일양국이 기존에 자원개발, 인프라 수출에 덧붙여 아시아 등에서 새롭게 니즈가 나오고 있는 스마트 시티 등 도시문제 해결 등을 통해 제3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또는 분업을 통한 협력안건을 창출해나가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자연환경구축 등 해당 제3국 발전에 종합적인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 가장 아래쪽에 과거 10년 정도 한일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프로젝트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95건의 프로젝트가 조성되었는데 작년 5건만을 보더라도 공개되어 있는 대상 프로젝트 투자금액은 약 2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통계에는 나오지 않지만 더욱더 국경이 무너지고 있는 이 기업활동의 관점에서도 한일간의 경제협력의 방법으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정부도 금융, 무역, 보험, 민간연계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서포트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양국의 정치 외교의 긴장감 고조는 기업의 경영판단, 리스크 테이킹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정부간 대화가 전진함으로써 긴장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재문화의 교류입니다. 최근에 이 어려운 한일관계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일 양협회는 함께 공동으로 지난 8월 한국에서 제26회 한일 고교생교류캠프 및 제14회 한일학생미래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했습니다.

또한 서울재팬클럽 회원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주한일본기업에서 인턴십 실습을 받은 한국대학생, 우리는 55명 있었는데 이 인턴십 수료식도 8월 30일 무리없이 잘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모두 대단히 훌륭한 청소년들이 참가해 주었고, 앞으로 한일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그런 데 3주전 9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축제한마당 인 서울’에 일본측을 대표해서 참가했습니다. 이 행사는 2005년에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해서 시작한 행사인데 양국 문화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상호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우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로서 계속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장이었던 코엑스에서는 안전도 배려하면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 또 젊은 사람로 북적거리면서 화목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도쿄에서 ‘한일축제한마당 인 도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꼭 이 행사도 성공시켜서 민간이 폴뿌리 교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젊은이들, 청년을 가급적 많이 육성하는 것은 우리 세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한일간 우호유지에 중요한 인프라로서 차세대에 이어질 수 있는 폴뿌리 네트워크와 지역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성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일경제인들은 전세계 사람들이 교류하는 자리부터 스포츠의 축제인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양국이 현재 경제상태에서 탈피해서 양국 국민들의 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경제계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일을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서울에서, 오늘 내일 이틀동안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들이 공통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앞서 나가는 길을 도출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회의가 결실 있는 것이 되기를 기념하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빈인사

사회 : 사사키 회장님의 구체적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축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정부측을 대표해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사키 미끼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님,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님,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한일양국에서 주요 경제인사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양국간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1965년 2.2억만불에서 작년 852억불로 약 40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양국 상호 방문객수는 작년 천만명을 넘어서면서 국교 정상화 당시에 만명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지난 50여년간 440억불에 달하고, 2,800여개의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여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양국간 문화교류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0~20대 사이에서 신한류가, 모바일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일본 음식과 애니메이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류를 통해 젊은 세대의 상호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협력해가야 할 이웃입니다.

따라서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렵더라도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고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일경제인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깝기 때문에 상호교역과 인적교류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국 경제인들은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를 형성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왔습니다.

최근 전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상호협력하고 보호무역주의를 함께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화,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그간의 협력 경험을 살려 공조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협력은 한일관계에 근간입니다. 앞으로 한일경제협력의 역사를 어떻게 더 견고하게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일간 미래지향

적 협력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일간 교역 및 교류 확대를 위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역내에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시장개방과 자유로운 무역은 일본이 20세기 중반 이후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또한 한국이 수출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WTO다자 체제를 위협하는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물결에 맞서는 것은 자유무역주의의 혜택을 누려왔던 양국의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가 잘 갖추어지도록 양국 경제인들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국이 4차 산업혁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및 에너지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야 합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제품과 서비스간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인공지능, 5G등 파괴적인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화, 친환경화, 고부가가치화를 중심으로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기업, 특정국가 혼자서는 신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고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국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알앤디, 설비투자, 인력양성, 국제표준제정 등으로 미래성장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더 큰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간 에너지 협력은 에너지 수급의 안정과 비용절감을 통한 양국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미래의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위해 양국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수소분야 협력 등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간 협력을 제3국과의 공동협력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양국기업들은 이미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제3국에서 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프로젝트 발굴 능력 및 자금조달력과 한국기업의 기술력 및 시공능력을 결합하여 향후 더 많은 해외공동진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경제인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1,500년 이상의 장고한 교류의 역사를 지닌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입니다. 그리고 양국은 경제분야에서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한일경제관계는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양국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제한되고, 서플라이 체인이 흔들리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간 적극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양국이 직면한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관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간 자발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한일관계 개선을 향한 초석이 될 것입

니다. 한국정부도 양국간 관계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신뢰에 기초한 경제협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본 속담에 ‘아메훗테지카타마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똑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양국간 만남과 대화의 노력이 쌓여간다면 앞으로의 한일경제협력관계는 비 온 뒤에 굳은 땅처럼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틀간의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축사의 마지막으로 나가미네 대사님께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전권대사



김 윤, 사사키 양국 회장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님, 고가 노부유키 회장님, 손경식 회장님, 유명환 前 장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제 51회 한일경제인 회의가 이처럼 성대하게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한국측 단장이신 김 윤 한일경제

협회 회장님, 일본측 단장인 사사키 미끼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금까지 51회 한일관계가 좋을 때에도, 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한 차례도 중단된 적 없이 한일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었고, 작년에는 기념비에 갈음할 만한 제50회 회의가 일본에서 다카마도노미야 비 히사코 전하, 아베신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그야말로 한일양국 수교수립 후 한일양국의 경쟁력 강화와 역사와 함께 궤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반세기에 걸쳐서 이 회의가 담당해온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한일경제인회의는 특히 매우 어려운 양국관계 환경 속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발생한 문제는 19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양국관계 토대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점은 한.일양국의 경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 등, 또 일본기업의 경제활동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우 어려운 상황일수록 민간차원에서의 한.일관계의 토대가 되는 경제와 문화교류가 갖고 있는 의의와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뿐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일양국은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금융, 제3국에서의 협력 등 이러한 면에서 밀접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에 있어서 이익을 준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도 한일 양국 간에는 어려운 현안이 많았으며 또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편, 양국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한일간의 관계는 매우 중층적인 교류를 통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의 폭넓은 관계자들 간에서는 양국교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이 관계를 앞으로 진보시키기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를 매우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한일경제인회의가 성과를 내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전진시킬 수 있는 회의가 되길 기원하면서 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기조연설

사회 : 대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조연설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단상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내빈께서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주셔서 다시 한 번 착석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면 양국 단장님의 소개, 지휘에 근거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들을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상정리)

두 분 단장님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단장께서 착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51회 한일경제인회의, 일한경제인회의 기조연설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진행은 본회의의 공동의장이신 김 윤 단장님과 사사키 미끼오 단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진행(김윤) : 지금부터 사사키 회장님과 함께 회의를 속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에 따라서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CJ그룹 회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손경식 회장님께서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장으로서 활동뿐만 아니라 올해는 새로이 한일축제한마당 한국측 실행위원장을 맡아주셔서 한일경제협력 활성화와 문화교류 증진에 많은 공헌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손경식 회장님 등단하시어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 CJ그룹 회장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주신 양국 경제인들과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일경제협회 김 윤 회장님과 사사키 미끼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사를 해 주신 유명희 본부장님, 나가미네 대사님 또 발표를 해 주실 유명환 前 외무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측 기조연설을 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고가 노부유키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측 참석자 여러분들께 각별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평화와 국제질서의 안정은 자유와 번영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북간 교섭에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계속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남북간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핵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세계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고, 지난 수십년간 세계평화의 한축이었던 비확산 체제의 근간에도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경쟁은 군사적 경쟁, 외교력 경쟁을 넘어서서 무역 및 기술패권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이 부딪히면서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동남아, 그리고 한반도 등이 미중간의 세력 충돌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전환기적 시점에 한일관계마저 경색되면서 역내 불확실성과 불안정정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과거사 현안에 대한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로 한일 사이에서 수출규제조치가 제도화되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서로를 배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8월 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을 중단한 결정은 한일 안보협력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미묘한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한일간 갈등심화는 상호손실을 가져다 줄뿐이고 오히려 역내 제3국에게만 이익을 주는 역설적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일양국은 경제적 호혜관계뿐만 아니라 안보협력의 끈을 튼튼히 유지할 때 서로의 번영과 안정이 담보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동맹인 한일양국이 함께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제도화를 해나가야 합니다. 한미일 협력은 동북아 안전을 위해서 군사,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삼각동맹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중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전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동북아세력 구도가 좁게는 남북관계, 넓게는 한미일과 북중러, 삼각동맹이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일 삼국간 상호 신뢰를 높여야 하며, 만일 한미일 협력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면 한국의 방어력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 한미일 협력에 관한 상호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양국은 감정의 용어를 뛰어넘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역내 질서에 대한 현실적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한일협력은 어느 영역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유무역질서와 국제분업체계에 기반한 글로벌 밸류 체인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별기업,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세계 3위와 11위의 경제력을 가진 한

일 양국은 비중 있는 무역국가일뿐만 아니라 한국은 일본의 제3위 수출국이자 5위 수입국이고, 일본은 한국의 제5위 수출국이자 3위 수입국으로서 상호무역의존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세계경제를 견인하는데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기술경쟁력의 완성도를 높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제품 생산을 통해 전세계 소비자들의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한국은 일본으로 부터 원료, 부품을 수입하고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한 후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중국, 동남아 등 많은 국가들이 밀접하게 상호연계되는 국제분업 체계가 선순환 발전해온 것입니다.

각국의 비교우위를 서로 연결해주는 국제분업 체제 하에서 적시, 적량의 제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밸류 체인의 선순환적 작동을 저해하게 됩니다. 결국 부품원료 제공자, 반제품 및 완제품 생산자, 그리고 국제소비자 모두에게 손실을 끼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 한일간 무역분쟁은 양국기업들 사이에서 다져온 오랜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국제공급망에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으로써 국제분업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큼니다.

이는 한일양국 기업들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한국기업은 일본으로 부터 부품, 소재, 장비 수입에 있어 불안정정이 발생하여 제품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일본기업들은 시장과 수익성에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일본기업들은 수출시장이 축소되고 한국 기업들은 기술개발비용을 포함한 생산비용이 증가할 뿐더러 수요 또한 일본기업과 양분하게 됨으로써 서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할 것입니다.

수출관리제도의 작동으로 양국기업들 간의 협력이 줄어들었다면 투자와 고용, 기업수익성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양국의 경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일양국이 국교정상화 이후 서로를 협력의 파트너로 삼아 꾸준한 동반성장을 이뤄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국 정부의 협력을 통해 동반하락이 아닌 동반성장의 길로 같이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강점을 서로 활용하여 시너지를 내고 세계공급망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일본은 일시적으로 손상된 양국관계를 재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함께 유지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이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협력자인 동시에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글로벌 경제 파트너로서 지난날의 갈등과 감정대립을 넘어서서 21세기에 걸맞은 선린협력관계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바탕 위에서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세계경제 성장에 함께 공헌하는 경제협력의 축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우리 한일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이자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이면서도 상호의존의 관계입니다. 과거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도 미래 협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국회에서 한 연설처럼 임진왜란 7년과 식민지배 35년의 50년이 채 안 되는 불행한 역사를 타하면서 1,500여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의 문화, 체육, 예술, 인적분야의 교류는 지속되고 확대, 강화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서로에 대한 갈등요소들을 상호 존중과 신뢰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경제협력관계와 경제인들의 우호 친선관계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법, 정치, 외교로 풀기 어려운 문제도 한일경제인들의 실용성과 포용력, 합리성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일경제인회의와 같이 한일경제인들이 함께 모여 신뢰와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알앤디, 투자,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도모하게 된다면 양국 관계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일양국의 희망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한일 양국민이 원하는 평화와 번영은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이 과거사의 앙금을 풀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양국의 평화와 번영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과 전세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했던 담화의 한구절로 오늘 제 연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로 의지하는 데는 신의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동북아 평화의 유지와 국제분업 체제의 발전을 위해 한일양국의 신의 회복과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한 번 내외귀빈 여러분과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한일경제인회의가 양국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경제인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김윤) : 손경식 회장님 감사합니다. 협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 한일양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글로벌 경제파트너로서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의미 깊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본측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사키 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진행(사사키) : 이어서 일본측의 기조연설을 부탁드립니다. 강연해 주실 분은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고 노무라홀딩스 회장이신 고가 노부유키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사회과제의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노무라홀딩스 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인노무라홀딩스에 고가입니다. 오늘은 한일

양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기조강연이라고 하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로 51회를 맞이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이렇게 중단되지 않고 올해도 개최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 회장님 그리고 사사키 회장님 그리고 개최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한일양국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양국의 민간기업간의 구체적인 안건을 추진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안건을 시작하기에는 지금까지 맞이해 보지 못했던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 앞서서 ‘이럴 때 경제인간 대화를 해서 뭘하시려고요?’라고 묻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한국과 일본의 재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하는 자리가 갖는 의의는 결코 변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의 기회인 만큼 민간교류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존재 의의를 생각해보면 사회과제를 발견하고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업의 책임이며 이를 통해서 기업은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양국의 현재 상황을 감안해본다면 공동의 사회과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공유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사명이라고 저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화를 계속하는 가운데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계기로 삼아서 민간기업이 노력해서 그 과제 해결과 나아가 그것을 비즈니스화 할 수 있다면 이번에 양국의 재계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 과제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노베이션 창출입니다. 최근 전세계에서 이노베이션의 창출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 중국에서는 대중창업, 만중창신, 싱가포르에서는 스마트네이션 등, 그리고 일본에서는 소사이어티 5.0 등 국가에 따라서 표현은 다르지만 각국이 이노베이션을 장려하고 보다 스마트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국가들이 이노베이션 창출을 갈망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노베이션 창출과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회조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입니다.

전세계가 대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일본과 한국에서의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현저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나타날 과제에 대해서 대응을까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공통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가 어떤 점을 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협조해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이노베이션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가 이노베이션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도 그 못 지 않게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서 민과 관이 함께 소사이어티 5.0을 실현해가겠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사이어티 5.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사회를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라고 부를 수 있고, 그에 이어진 인간중심의 초스마트 사회를 소사이어티 5.0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소사이어티 5.0이란 디지털 혁신과 다양한 사람들의 상상력, 이미지네이션과 크리에이티비 이 두 가치를 융합함으로써 사회과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디지털 혁신의 계기로 사회의 존재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경단연이 그 선두에 서서 그 실현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사이어티 5.0의 실현은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응이기도 합니다.

SDGs에서는 세계를 바꾸기 위한 17개 목표가 나와 있고요. 그 변혁의 방향은 소사이어티 5.0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각한 사회과제를 많이 안고 있는 일본에서는 과제 해결 선진국으로서 SDGs국제표준화를 리드해야 하며, 그와 같은 의식을 갖고 소사이어티 5.0 SDGs에 스 명칭을 붙인 전략적인 변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소사이어티 5.0 실현을 위해서 경단연이 내세운 변혁을 위한 액션플랜에는 디지털 거버먼트 구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전자정부 순위에서 향상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의 대응은 일본에서 봤을 때는 매우 참

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사이어티 5.0에서는 사회 전체가 최첨단 기술과 의사를 가지고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연과 공생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AI 로봇의 지배가 되고 감시당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선진국만이 그 성과를 누리는 그런 사회도 아닙니다.

전세계 모든 곳에서 실현 가능하고 누구나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인간중심의 사회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초스마트사회의 도래는 사람과 기업, 지역 사회 변혁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활동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을 뺏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왔던 노동에서 해방되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보다 많은 시간을 노동 외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 봅니다. 즉, 지금까지 존재했던 시간으로 부터의 제약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간은 생산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일에 사용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사람이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그것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소사이어티 5.0의 실현이라고 하는 매우 큰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새로운 사회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인지, 일본에서만뿐만 아니라 한국재계 관계자분들과도 함께 논의하고 솔직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소사이어티 5.0에서 지향해야하는 사회상은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방문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1988년 10월 20일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것이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이었으니 그야말로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때 제가 왔던 것은 한일증권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증권업협회 회장으로는 제가 있던 회사에 타부치 회장이 맡고 계셨고, 저는 회장 비서로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 방문에는 제가 가장 크게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서울에서 탔던 버스가 이드 분이 '이제 환율이 자유화되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갈 것이다'라며 정말 기쁜 듯이 표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일상이 바뀌는, 나날이 바뀌는 매우 성장이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 성장했고 지금은 성숙된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출산 현황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1960년대까지는 4개 나라 모두가 2.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모든 나라에서 출산률이 저하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합계 출산률은 매우 낮아져 최근 들어 일본이 1.5 미만, 한국은 1정도입니다. 현재 세계 전체 합계 출산율은 약 2.25입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7%가 넘고 그 2배가 되는 14%가 될 때까지 소요 해수를 살펴보면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2년에 걸쳐서 이에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은 24년, 한국은 불과 18년 만에 같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전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한편 사회보장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사회 시스템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꿔말하자면 현역 세대들이 일부러 고령세대에 모든 것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와 같은 플로어만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것을 현재 잠들어 있는 자산에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고가 되고 있는 자금이 활용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지금의 유동성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하는 자산에는 물론 당연히 공적자산도 있겠지만 개인의 금융자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는 양국 모두 개인금융자산의 대부분은 예적금으로 그대로 거치되어 있으며, 재고자산을 유동자산을 창출하는데 움직이고, 즉, 저축에서 투자로 가는 움직임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자산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자산이 줄어든지도 모르는 리스크는 감당하고 싶지 않다, 몇

살까지 생존할지 알 수 없는데 자산이 줄어드는 건 절대 싫다...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10년 후에 아이들의 대학진학시에 자금, 혹은 젊었을 때 10년 후나 20년 후에 자신들의 노후생활, 즉 연금으로 생활했을 때 대비 이와 같은 시간축을 길게 생각하는 국면에서는 투자를 합니다.

반면 1년 지나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자금, 즉 시간축이 짧은 국면에서는 저축을 한다는 것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고려할 때 기본적인 개념이 아직까지 사회에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것이 한국과 일본 모두가 갖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탄없이 논의하는데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늘어가는 고령자에 대해서 새로운 대응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장수가 경제활동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과 경제학, 심리학 등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금융 제로톨로지’라고 하는 학분분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이를 먹음에 따른 노화가 자산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라고 하는 그 정의 자체에 대한 논의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장수화의 진행으로 인해서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고 있으며 굉장히 건강한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투자가 개인의 연령과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판단능력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판단능력의 저하속도는 사람들 마다 제각기입니다. 그리고 진행정도도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의 능력만으로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행동데이터를 집약 분석함으로써 그 내용을 통해서 금융거래에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금융기관에 있어서도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노베이션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한일 양국이 직면한 두 가지 큰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국 기업에게는 이러한 공통된 과제 해결에 투자를 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이노베이션을 실현하는 기업이야말로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한일양국의 기업이 눈앞의 이익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대화하고 그러한 후에 서로가 절차탁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하는 의의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방을 정리하던 중에 액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본증권업협회장을 맡으셨던 타우치 회장님이 만드신 액자로서 ‘밑점을 응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간 중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좋은 점은 있다. 좋은 점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결

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아마 쓰셨던게 아닐까요? 사람이든 조직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서로 반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는 모든 것이 나와 반대이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조직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만 있다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민간교류에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단정짓지 않고 상대방의 장점을 모색하면서 기탄없이 활발하게 앞으로 민간교류를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사사키) :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 윤 회장님께 의사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진행(김윤) : 이상으로 기초연설을 마치고 다음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후에, 원래는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서석승) : 일본과 한국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국 대표단분들 회의장 안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 15분이되었기 때문에 양국 단장님께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 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3. 특별강연

진행(김 윤)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터는 특별강연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강연은 유명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께서 ‘북한의 개혁 개방과 한일협력’이라는 주제로 해 주시겠습니다.

유명환 고문께서는 1973년 외무부 근무를 시작으로 주일본특명전권대사,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역임하신 외교통상전문가입니다. 18년부터 북미정상회담이 세 차례 개최되는 등 최근 북한의 정세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후 북한의 변화를 가정하여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명환 고문님 등단하시어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유명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방금 소개받은 유명환입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20분이라 제가 조금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목은 ‘북한의 개혁 개방과 한일 협력관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먼저 북한의 개혁 개방의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경제와 시장기능의 확대,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장악의 강화, 네 번째로 경제제재와 비핵화 문제, 다섯 번째 현정부의 대북정책기조, 여섯 번째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정상회담, 그다음에 일곱 번째 북한의 개방 개혁과 비핵화의 딜레마, 마지막으로 한

반도의 평화안정, 일본의 역할 이렇게 8가지 항목에 개략적인 결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세습체제하에서 북한이 과연 개혁 개방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 다시 말해 북한의 개혁 개방은 김정은 정권의 선택의 문제보다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 됐습시다마는 2011년 권력을 승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불과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 '앞으로 더 이상 허리띠를 졸여 매는 경제적 곤란은 없을 것이다'라고 인민들에게 약속한바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인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김 위원장으로서는 또 하나 고난의 행군을 감수하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 사회는 김정일 시대와는 무척 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승계 받은 시점과 비교하더라도 지난 8년간의 변화는 주목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김정은 정권도 그 속도나 범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경제와 시장기능의 확대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냉전 종식 이후에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을 했습시다마는 인민들의 반발로 실패한 이후 사실상 자생적인 북한의 자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주'가 생겨났고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 600여 개에 달하는 '골목시장'을 통해 그러한 '자본가, 돈주'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사실상 붕괴된 배급제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골목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골목시장'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고 나아가 시장에 물건을 조달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많은 이득을 보면서 자본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협동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품도 농민들이 직접 골목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들 자본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활동뿐만 아니라 나진, 선봉 지역에 있는 외국계 공장에 잘 팔리는 생필품을 주문 생산해서 전국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직후에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동농장의 단위규모를 아주 축소하였습니다. 두 가구, 세 가구 단위로 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서 생산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서 생산물의 일정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생산량에 괄목할 만하게 증가된 것도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소위 주체사상이 약해서 북한은 자립경제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지금 사실상 파탄 지경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공업생산에 있어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단위로 생산과 판매에 있어 자율성을 높이고 이익을 스스로 분배할 수 있는 재량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경제는 과거 70년대 중국과 같이 초기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닮아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최근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품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이 북한 전체 교역

의 한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중국이 유엔에 대북제재 적극 협조하였을 때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장악이 강화되었습니다. 금년 4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소위 ‘김정은 제2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년간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권력 기반의 확충을 위해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공신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즉 세대교체를 실시하고 자신의 심복을 주요 위치에 배치해서 권력장악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조치는 김정일 시대의 권한이 집중되었던 소위 군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과거 조부 김일성 시대와 같이 당 중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시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이 군사위원회가 아니라 당 중앙위원회의 결의 형식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군을 견제하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는 이제 안정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원한다면 과감한 경제 개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분석됩니다.

금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연설에서 ‘핵무장 완성이 달성되었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북한은 재작년 12월 제6차 핵실험이 성공했고 그 이전에 아이씨비엠 발사 성공을 계기로 소위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바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 제1기의 업적을 핵미사일 완성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김정은 제2기는 경제발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발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결국 외부의 힘을 빌리는 개혁 개방을 통한 외부의 경제 지원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구 동구권과 같은 완전한 개혁 개방이 아니고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제한적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엔 경제 제재와 비핵화문제를 말씀드리면 북한이 당면한 가장 큰 모순은 다름이 아니라 비핵화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숙제입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실행하지 않는 한 미국 및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개혁 개방을 통한 외부의 경제 협력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이 처한 현실적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말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2016년 이후 채택된 5개의 유엔 경제 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핵화라는 안보 문제를 처음으로 경제문제와 직접 연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앞으로 경제개발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주장도 자신이 핵개발한 것은 미국의 안보 위협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집권을 위한 명분은 이제 안보보다는 경제에 있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북한 내부 사정이 그만큼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은 과거 보수정권과 비교할 때 보다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논리적 접근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대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보적 젊은 세대는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전쟁을 경험한 보수적 노년층은 북한의 독재 세습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크기 때문에 현 정부의 유화적 접근 정책을 다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대북정책에 관한 한국 내 여론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대북정책 문제는 외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쟁 직후 이산가족의 수가 전체인구의 20%에 가까운 적이 1천만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산가족 재회 문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매우 중요한 어젠더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서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된다면 이는 집권 여당으로서 매우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남.북한 간의 문제에서 미북간의 문제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수교국 간에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매우 큰 예우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물론 이를 성사시키는 데는 문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 2월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종료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트럼프/김정은 간의 53분 회동은 미북 협상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좀 더 현실적으로 부각될 수 있었으나 그것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 및 미북 정상 레벨의 대화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 발전 잠재력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면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비핵화라는 것이 전제 되어있기 때문에 북한이 오판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의 개혁개방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그에 따른 역사적 흐름 그리고 북한이 처한 현 상황에서 볼 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변 강대국 다시 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대강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핵화 없는 북한의 개혁개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의 목표는 냉전종식 이후 지난 30년간 황폐된 북한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주장

할 수 있는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혈통만으로 앞으로 장기간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북한사회가 변화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파폐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김정은 세습정권의 정통성은 오래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의 사회 경제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90년대 체네바 합의와 경수로 건설사업의 경험에서 볼 때 미국은 일본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은 미일동맹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은 7개 주일 미군기지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과거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했던 “애치슨 라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정학적이 사고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매우 강력한 동맹국입니다. 더구나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 분쟁으로 앞으로도 미일동맹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성장은 한미일 3국협력 체제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경제 지원에 있어서도 미국은 일본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가정할 때 어떤 형식이 되든지 일본은 상당한 규모의 대북경제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혼자서 만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많은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충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등 서방세계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우에 한국은 일본 및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염두에 둔 한국으로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김윤) : 유명환 고문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특별강연을 마치고 한일경제인회의에 산하 전문가회의인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개최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석송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국측 চে어맨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석송 চে어맨께서는 올해부터 안중원 전 한국측 চে어맨님의 뒤를 이어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으로써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한국측 চে어맨을 맡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석송 চে어맨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4 경과보고

오석송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국측 চে어맨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오석송입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일의 공통과제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며, 한일경제인회의에 논의 의제를 상정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로서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지난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인터컨티넨탈호텔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에서는 저를 포함한 39명이 일본측에서는 아소 유타카 체어맨 등 3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에 대하여, 제2세션에서는 ‘한일 공통과제의 실현’이라는 주제 아래, 양국의 지일·지한 리더의 역할, 한국청년인재의 활용,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한일간 관계구축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제20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측 발표 제안 내용과 자유토론을 중심으로, 아소 체어맨께서는 일본측의 발표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님께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최근의 한일 갈등은 양국간 협력에 따른 이익보다 극단적 자국우선주의 이익과 상호불신, 상호비난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적·문화적 교류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양국간 인프라가 견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 총장님은 양국 국민감정의 악화가 경제 감정의 악화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한일 양국은 새로운 인프라 구축으로 양국 지일·지한 리더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활동과 한일 지역간 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공동 등재와 같은 양국간 긍정의 기억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2세션에서는 서석승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께서 ‘일본 경제를 위한 한국 청년인재 고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한일관계는 지정학적으로도 떨어져 살 수 없는 숙명적인 이웃으로, 상호이해와 선의의 경쟁, 상호협력만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일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양국간 상호신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공동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인적교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넘치는 구직자와 일본의 일손부족을 매칭 시키는 사업이야말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협력 분야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션 발표 종료 후, 자유 토론에서 한일양측 모두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의 하나로 양국 언론의 왜곡, 과장된 보도를 언급하고 언론보도 후의 과장과 후유증을 생각하지 않고 보도하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에 같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양국은 언어가 유사하지만 표현방식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언어적 이해의 차이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개선을 위해서는 인적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모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고교생교류활동뿐만 아니라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처럼 1학기, 2학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제도 등 도입을 통해 대학생 교류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할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한일 양국은 이제 최악의 한일관계를 극복하고, 확실한 관계를 구축하여 차세대에 계승해야 합니다.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는 것처럼 한일관계도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양국 지식인들이 먼저 모두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으며, 대화를 통해 함께 양국 관계를 풀어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국우선주의 이익보다는 양국간 협력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상호신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한일 경제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점을 서로가 깊이 인식하고, 상호 협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한일관계 개선과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활동에 대한 한국측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김윤) : 오석송 চে어맨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측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사키 회장님 일본측 চে어맨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사사키) : 일본측으로 부터는 아소 চে어맨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소 유타카 চে어맨은 일한 경제협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아소시멘트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아소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아소시멘트 회장

방금 소개받은 아소입니다. 지난 3월 신산업무역회의에서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치 및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안 좋은 상태가 갱신되는 게 아닐까 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속에서 지금은 무엇보다 이 상황이 장기화되고 양국이 납득하지 않는 상태로 거짓 종식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1969년 제1회 개최 이래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 올해로 51회를 맞은 한일경제인회의를 오늘 여러분과 이곳 서울에서 함께 맞이할 수 있음에 안도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본 회의 개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현재 한일문제의 해결책 도출로 이어지는, 결실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2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일본측 발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 한일협력’을 주제로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제1세션 주제는 ‘한일관계 새로운 도약’이었습니다. 일본측에서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겸 한국 미쓰이 물산 대표이사 모리야마 도모유키 사장님께서 ‘서울재팬클럽의 활동 및 과제’를 주제로 한국 내에서 가장 큰 일본인 커뮤니티 SJC, 서울재팬클럽의 활동으로서 문화교류 및 사회공헌, 한일·일한경제협회/산업기술협력재단과 연계한 한일 제3국 공동진출 미션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실습 프로그램의 실적과 성과, 그리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일본계 기업의 건의사항 제출과 검토 요청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과제로서는 SJC 회원의 감소, 종업원의 임금상승과 최근의 한일간 문제 등 한국에서 비즈니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발표하셨습니다. 모리야마 도모유키 사장님은 내일 제1세션에서 한국 내 일본기업의 활동 상황에 대해 발표해주실 예정입니다.

제1세션 질의응답 때는 한국에 진출해서 56년째를 맞은 도레이첨단소재가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성장을 위해 지켜온 원칙에 대해서 이영관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최근 한일문제에 대해 정치 및 외교의 분위기와 민간 분위기간의 온도차, 언론의 책임, 역사적 기억에 대한 한일간의 관점의 격차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제2세션의 주제는 ‘한일 공동과제 해결의 실현’이었습니다. 일본측에서는 시즈오카현립대학 국제관계학부 고하리 스스무 교수님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한일간 관계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일본에는 ‘코리아 퍼티그(한국에 대한 피로감)’, 한국에는 ‘일본 퍼티그’ 라는 말이 있지만 양국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감각입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양국에서 서로에 대한 위협 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정치, 외교가 안정되지 않으면 여러 분야에서 안정되지 못한다는 내용, 그리고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한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이러한 분위기도 갖고 있고, 양국의 보도 기사 등을 통해서 한일간의 인식 격차가 크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는 8백만명의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교류가 추진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50년 동안 4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공적예산을 확보하여 양국 청소년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고하리 스스무 교수님은 내일 세션2의 코디네이터로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총괄해주실 예정입니다. 제2세션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은 제1세션에 이어서 현재 한일간 문제에 입각한 현황과 또 한일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환경에 있으며 양국의 연결관계를 외부로 향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일이 제3국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앞서 몇 차례 소개가 있었지만 제3국 한일 공동프로젝트가 100건에 달하며 한일일한경제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생, 대학생 교류회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25회, 제26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가 일본 NHK에 의해 취재방영되고, 직접 취재를 토대로 일한경제협회, 그리고 재단사업에 대해 한국의 주요 신문에서 크게 보도가 되는 등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양국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미래지향적 청소년교류사업인데요. 올해에도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일 없이 8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한일고교생교류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부산에서 한일학생미래회의가 본래의 취지와 일정대로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양국에서 참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평소와 같은 밝은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매우 따뜻하고 좋은 교류회가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서 커피 브레이크 때도 3명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3명 이 자리에 있나요? 저 뒤에는 앉아있네요. 3명의 학생이 “대단히 즐거웠다.” 그래서 고등학생 교류를 앞으로 도 꼭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교생교류캠프의 모습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5일 NHK BS의 ‘국제보도’에서 방영 되어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도 해당 영상이 게재되었습니다.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년 2018년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제25회 한일일한 고교생교류캠프의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에는 한일양국의 참가 고등학생들이 함께 원폭 돔이라든지 히로시마 자료관을 방문해서 평가에 대한 학습장외에도 참가했습니다. 10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청소년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본사공장과 오따꾸소스의 본사공장, 그리고 최첨단 현대적 건물의 쓰레기처리시설 공장, 굴양식장 등 경제의 여러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학습을 토대로 전세계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한일 양국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안)을 실제로 시찰한 다음에 본인들은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지구환경을 지킬 수 있을지 그런 공동프로젝트를 위해서 토론도 하고 아주 원활한 형태로 평화를 얘기하고 양국 상대국에 대해서 알고 또 오랜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고교생교류캠프는 여러분의 지원 그리고 차세대가 사이좋게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이 거리감을 더욱더

짧게 단축시킬 수 있고 거리감을 좁힐수록 있도록 지원 제도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행(김윤) : 경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일 개최되는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양국협회 활동에 대한 일반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서석송) : 회의자료 53페이지에서 57페이지 사이에 내용이 있습니다. 준비된 것은 양국의 협회이기 때문에 일본측과 함께 준비된 내용입니다. 먼저 같이 준비를 해 주신 일한경제협회 고레나가 가즈오, 책임자이신 전무이사님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회중을 향해서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양 협회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에 경과가 쪽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실적이 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향후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 다만 오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53페이지 이하의 내용은 대표단 여러분께서 따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절약상 제 경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김 윤) : 그러면 이상으로 한일신산업무역회의와 일반경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제1세션

테마 :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

사회 : 김정호 부장

오늘 회의는 한일 동시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리시버 채널1이 한국어 채널2가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갖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모드로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제1세션의 좌장님과 한일양측 주제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주시기 바라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세션 좌장을 맡아주실 염재호교수님이십니다.

염재호 교수님께서서는 스탠포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치신 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장과 한일미래포럼 대표로 활동해오셨으며, 2015년부터 금 2월까지 제19대 고려대학교 총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세션 주제발표를 해 주실 한일 양국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측 발표자입니다. 이우광 주식회사 농심 사외이사님이십니다. 다음은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일본측 발표자입니다.

먼저 무코야마 히데히코 주식회사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이십니다. 다음은 모리야마 토모유키 한국미쓰이물산 주식회사 사장님이십니다. 모리야마 사장님께서서는 현재 한국 최대의 일본계 커뮤니티인 서울재팬 클럽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 진행을 염재호 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좌장 : 염재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염재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모여

주셔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가 한일양국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한일이 협력해나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관계가 정치는 갈등 속에 있지만 경제는 협력 속에서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같이 발전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21세기가 시작된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한일양국이 끌어나아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발표자 여러분의 발표내용과 그다음에 토론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제3국에서의 협력관계를 비롯해서 미래에 같이 협력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일경제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네 분의 발표자로부터 각각 20분씩 주제발표를

듣고 그 후에 1시간 정도 발표자 사이에서의 토론, 그리고 또 장에 계시는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광 주식회사 농심 사외이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이우광 사외이사님께서서는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삼성경제연구소의 일본연구팀장, 재단법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신 대표적인 한국의 일본 경제연구전문가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일기업의 제3국 협력 2.0’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우광 사외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이우광 주식회사 농심 사외이사



방금 소개받은 이우광입니다. 어저께 사사키 회장님께서 2018년까지 양국간에 3국 협력 사례가 95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양국기업간 3국 진출 협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실질적인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조금 뜸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자원이나 아니면 인프라, 공단, 이런 데서 협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협력 사례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를 양국기업의 제3국 협력을

찾다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양국간 55년간 산업협력의 역사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주로 기술협력, 그다음에 연수단 파견, 이런 형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성장기에 적극적인 무역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발전기에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한일간 관계에 대한 영향 이런 게 미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협력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한국경제가 도약을 하면서 전략적 제휴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양국간의 산업이 수평적 분업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양국간 무역이 천억 달러를 고비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은 한 850억달러입니다마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접투자도 2012년에 40억 달러를 기점으로 최근에는 20억 달러 전후에서 일본으로부터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양국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간의 어떤 무역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양국기업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유명희 본부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3국 진출, 협력 이런 것이 큰 양국간 기업의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7년에 경제인회의보고서에서 양국이 자원개발, 인프라 수출 등을 통해서 제3국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창조해나가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제3국에 종합적 사회개발에 대한 협력이란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간 협력에 어떤 큰 방향의 한 축은 3국간 진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와의 어떤 협력에 의해서 그다지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기업문화의 유사성이라든지 기술 및 경영관리 수준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양국 기업간의 협력은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업은 예를 들어서 빠른 의사결정이라든지 효율적인 생산관리, 범용기술에서의 어떤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핵심기술 그다음에 작업력, 브랜드 파워, 이런 면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협력을 하면 협력은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겠고, 또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협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95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시면 대부분 자원, 인프라 이런 쪽입니다. 사실은 아시아에서의 자원인프라 이런 측면에서의 수요도 그다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새로운 협력방식을 모색을 해야 될 때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목에 '2.0'이라고 붙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협력방식을 토대로 새롭게 협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2.0'이란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지역과 그리고 협력방식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드린 골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가장 인접한 지역은 역시 아세안

입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1970년대부터 상당한 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협력관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실은 일본보다는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 한국에서는 '신남방정책'을 표명하면서 아세안을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과 주변 4강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협력관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신남방정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향력이 있는 일본기업과 새롭게 진출을 하고자 하는 한국의 협력은 굉장히 협력 모델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세안 지역의 경제발전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경제성장 그다음에 인접성 그다음에 저렴한 인건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아세안의 위상은 한국이나 일본기업으로서도 굉장히 최근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뿐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관점에서 아세안 지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세안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베트남을 추천을 드립니다. 베트남은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투자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총체적으로는 한국이 조금 우위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일본기업이 대등한 관점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측면에서도 연13%라는 고도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중국과도 가까운, 이미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일본기업들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서플라인 체인에서 물류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상당한 역

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베트남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도이모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인구, 교육열, 국민성,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더 매력적인 것은 베트남이 FTA라든지 어떤 교역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의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으로서는 베트남에서 양국기업이 협력을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자원이나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새로운 분야로서 어떻게 개척을 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신사업협력, 특히 스마트시티라든지 인력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상당히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의 경우에는 한국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향후에 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이미 에너지 분야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디케이 비즈니스에 시나몬이란 회사가 베트남에서 AI인력을 한 100명 정도를 고용을 해가지고 AI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의 인력 중에서 한 30%가 컴퓨터 사이언스 인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최첨단 인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비숙련노동자를 양성해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양국기업이 기업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인력양성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런 측면에서 양국기업이 협력할 수 있고, 또 일본기업들은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대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고도성장을 하다보니까 최근 들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상당한 비즈니스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지속발전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점에서 포커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미 하고 있는 ODA라든지 이런 자금들을 양국에서 활용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일협회라든지 경제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에서의 어떤 한일양국 기업간의 협력을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는 전혀 실현될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 유명회 본부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그림에 불과할 뿐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어떤 협력은 실현가능성도 높고 양국기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분야로 새롭게 양국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협회를 포함해서 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염재호) : 이우광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일본의 산업정책을 볼 때 일본의 경제구조를 ‘경쟁과 협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안에서의 경쟁과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3국에 대해서 경쟁하고 협력, 혼히는 경쟁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특별히 한일관계에 한일 교역이 위축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세 속에서 한일기업이 협력하는 것이 상당히 두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관점이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최근에 비약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한국과 일본이 각각 경제에 접근을 할 때, 따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또 각자의 강점을 이용해서 베트남 결정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것을 제3국 협력 2.0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스마트시티개발, 이것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제3국들이 스마트시티로 새롭게 개발하는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IT, 그 다음에는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나중에도 한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재의 공동육성,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한일간 대학생들의 교류라든가 지식인들의 교류가 소강상태에 빠져있는데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ODA 같은 걸 통해서 지속가능한 환경, 오염저감노하우 전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않은가,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본쪽의 전문가가 말씀해 주실 것도 베트남에 대한 한일의 어떤 전략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주식회사 일본종합연구소에 수석주임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무코야마 수석주임 연구원께서는 미국 뉴욕대학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신 후에 주식회사 일본 종합연구소에서 한국경제분석, 대표적인 한

국경제전문가시죠. 아시아의 매크로 경제동향분석을 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향후 변화되는 한일경제관계와 서플라이 체인. 한국기업의 베트남 이전,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종합연구소에 무코야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일본 종합연구소에서 한국경제를 보고 있는데요. 한국경제 그리고 한일경제 관계를 생각할 때 세 가지 관점을 항상 의식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한일의 경제관계를 한국과 일본 관계 만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 또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을 둘러싼 커다란 국제환경, 글로벌 환경 속의 변화, 이런 것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냉전체계가 붕괴되어서 한국,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게 9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관계가 점점 확대되어서 한국에서 경제적 측면 또 북한문제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한편 일본의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인데요. 일본에서 한국을 봤을 때 당연히 한국정부의 정책의 움직임, 동향, 그리고 한국기업이 일본을 볼 때는 일본정책, 기업의 정책, 이런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쪽에서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상당히 작년 가을, 작년 말 정도부터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정책을 계속해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또 작년 가을 이후에 미중무역전쟁 영향으로 수출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경제 강화에 더욱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일본기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7월 이후 일본정부의 대한수출관리강화를 계기로 해서 한국정부, 문재인 정부가 국산화 혹은 국산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구개발지원에 본격적으로 라고 할까요? 지금까지도 물론 그것을 해왔지만 더 가속화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탈일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문재인 정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비핵화가 진행됐을 때 남북경제교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것이 실현됐을 경우 새로운 가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쪽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먼저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수출에서 차지하는 혹은 수입에서 차지하는 일본, 한국, 대일, 대한 의존도입니다.

장기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일의존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통계에서 보면 일본의

중요성은 저하하고 있지 않을까, 저하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떨까요?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중요성, 한국기업에서 봤을 때 일본의 중요성이라는 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한국경제인데요.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중국의 중간재가 점점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의 성장가속도로 인해서 해운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운수요가 늘어나면 조선수주로 이어지죠. 그리고 자원수출이 늘어남으로써 자원국 성장이 가속화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또 여러 소비재시장이 집중되고, 또 각종 개발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한국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전자기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대 연평균 성장률 4.4%, 지금 생각하면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주목을 해야될 부분이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하는 수출, 일본의 대한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수출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원료, 재료, 그리고 부품, 제조장비, 이러한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국의 성장이 일본으로 부터의 수출,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으로 이어지고,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수출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건 이런 기회에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 크게 두 차례에 걸친 대한투자 붐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대 전반은 이것은 주로 한국에서 액정패널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국산화를 그때 촉구하는 가운데 일본기업의 현재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일본에서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새

로운 산업으로서 유기이엘페닐이 성장을 했던 그러한 영향도 있었지만 이것은 어느 쪽인가 하면 일본기업이 6개 어려움, 초엔고, 그리고 법인세율이 너무 높다 등등 이러한 6가지 육중고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은 매력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업의 성장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대한 직접투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현지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대일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일 수입 의존도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일본 의존도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 라고는 꼭 볼 수 없습니다.

수출된 것이 현지 생산으로 전환된 그런 움직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스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생산의 움직임, 동양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대 전반에 액정패널산업에서 현지 생산이 진행되었습니다. 액정패널은 과거 일본에서부터 수입했는데 한국에서 국산화를 하게 됩니다.

삼성그룹, 엘지그룹 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 합작해서 유리기관을 만들고 편광판을 예를 들어서 그룹회사에 계열, 엘지 같은 경우는 엘지화학이 생산하게 됩니다. 액정패널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액정TV의 수요를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액정패널의 원가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액정패널의 원가를 저감 시키기 위해서 국산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일본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봤을 때는 한국기업은 어떨까요? 반도체에 대해서 이러한 전자기기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고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기업의 국산화 동향에 발맞춰서 현지 생산을 해나가는 그런 동향이 점점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은 탄소섬유입니다. 탄소섬유, 대단히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경량이고 대단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탄소섬유, 이거는 일본의 도레이가 13년이었던가요?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기업 효성, 대광, 이러한 한국기업들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어떠한 움직임이 있냐면 탄소섬유를 포함한 탄소섬유류 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일본에서 수입을 했는데 점차 한국에서 현지 생산, 국산화를 통해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형태로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이 한일의 무역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역의존도에서 볼 수 없는 현지 생산,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지 생산, 국산화로 인해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줄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 특히 주목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산화도 있지만 일본기업이 혹은 한국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또 게다가 제3국에서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이러한 움직임도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로 든 것은 적층세라믹콘텐서입니다. 적층세라믹콘텐서는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에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기업이 일본 국내에서 생산했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일본기업도 나왔고, 또 한국기업이 국산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기업도 이것은 양산화를 할 때, 그리고 유저기업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제3국에서 생산을 점점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라타제작소 중국에서 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또 제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어떠한 움직임이 일고 있냐면, 매우 흥미로운 동향이 보이는데요. 그것이 좌측의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적층세라믹콘텐서 수입액은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옆에 가운데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수출 적층세라믹 수출액도 늘어

나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적인 적층세라믹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국을 보면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일본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중국, 이젠 아마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기업, 혹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라타제작소가 필리핀에서 적층세라믹 콘테서를 제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양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본과 한국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매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으로부터 예전에 한국에서 대일 수입했던 것이 한국의 경제발전, 여러 가지 둘러싼 경제 변화로 인해서 현지 생산도 하고, 혹은 제3국에서 생산한 것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공급시키는 그러한 한일간 서플라이 체인이 바로 한일의 틀을 지금 넘어서 확산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몇 장 스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핵심이 되는 소재 분야의 일본 의존이라는 것을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의해야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한국에서는 국산화, 부품소재 분야의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습니다. 연구개발이라든지 인재개발 그리고 또 사업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특별조치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산화는 한국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해서 외국계 기업을 유치해서 현지 생산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성격도 같이 있었습니다.

전용부품소재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한국의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그 타겟팅해서 일본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2천년대에 들어서 보였던 동향입니다. 그러한 성과였는지 어떤지 그 다음을 보면 먼저 좌측 그래프인데 이것은 한국의 전체적인 무역흑자액

입니다. 그리고 부품소재분야의 무역흑자액입니다. 대단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품소재분야의 흑자액이 전체 흑자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이 주력 수출부품이 되고요. 또 한국의 철강 제조사 포스코에서 고급 강판 월드 프리미엄제품, 이러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확실하게 부품소재 분야에서 성장을 해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이것이 가운데 그래프인데요. 대단히 흥미로운 동향이 보입니다. 무역적자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적자가 또 감소도 하고 있고, 무역적자가 감소함으로써 국산화의 성과가 있다 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견 적으로 봤을 때 경기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천년대는 한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수출의 기세가 사그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일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될 것은 아래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부품소재분야의 적자액, 그리고 전체의 대일무역적자액의 비율입니다. 2천년대 어떤지요? 그 비율액이 점점 저하되는데 다시 후반이 돼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면이 보입니다. 아마 2천년대에 저하하고 감소한 것은 2천년대 일본에서 한국으로 대한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얘기하자면 액정패널의 현지 생산화가 가속화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현지 생산 동향이 일단락해서 또 그다음에 감소한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대한 투자가 늘어난 시기랑 겹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품소재 국산화에 일본기업의 투자 현지 생산이라는 것이 대단히 큰 효과를 미친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관리 강화가 부각시킨 것이 핵심이 되는 소

재부품의 대일 의존입니다. 우측 하단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일 무역수지, 큰 틀로 어느 분야에서 적자가 큰지를 본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부품은 전자부품, 소재로 얘기하자면 화학제품, 화학제품 중에 규제 세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화수소 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 제품, 세가지요. 그다음에 또 스킵을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를 계기로 해서 한국정부,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일본에 이기다’ ‘극일’이라는 의미로 한국의 국산화를 가속화시키려는 정책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이 국산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보조액을 늘리고, 또 올해 세제개혁법으로 기업에 투자, 연구개발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또 내년도 예산에서 연구개발 국산화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내년도 예산, 이렇게 쪽 보시면 이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최근 한두 달의 추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정부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이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기업의 국산화, 기업제품들의 국산화를 장려하고 있고, 또 독일의 화학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 차원에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향이 꽤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일본의 기업, 한국의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만들어서 한국기업이 최종적으로 에칭제로 이걸 가공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했었던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제3국 것을 쓰면서 시험적으로 제조공정에 일부에 투입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한 추이가 계속되면 일본기업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중요한 고객을 잃지는 않지만 최하 점유율을 상당히 잃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한국기업,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2천년대 들어

서 일본의 서플라이에 있어서, 공급자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기업은 이런 한국기업의 국산화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리타 화학인데요. 연내 중국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 것이라고요. 또 그 사장이 말씀하시길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수출하겠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수출이 가능하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했고 부품에 대해서도 제3국에서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보다 더 한국에서의 현지 생산 동향이 더욱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천년대에 한국 4.4% 경제성장률, 이렇게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계속 유지해왔는데 최근 성장률 2%, 3%대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성장감속, 그리고 중국의 국산화 영향이죠. 이러한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국기업의 베트남 씨프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우광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기업의 베트남 씨프트는 삼성전자의 그런 움직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을 베트남에서 만들고 그걸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부에서요. 그리고 베트남 남부에서는 가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젠 아세안시장 쪽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그룹의 뒤를 잇는 것처럼 엘지도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베트남은 스마트폰의 주력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면 철강 포스코라든지 현대자동차도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기존 이상으로 강화하고 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CJ그룹, 그리고 롯데, 또 금융으로 말씀드리자면 신한그룹 등이 적극적으로 편택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베트남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은 일본을 초월해서 지금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국 전세계에서 3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를 둘러싼 동향을 보면 이것이 아래쪽 그래프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수출국, 절대적으로 중국, 홍콩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로 베트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베트남에서 삼성이 스마트폰을 제조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 메모리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베트남 진출 씨프트뿐만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보시면 중국에서 생산했었던 해외기업들, 그리고 중국기업들이 점점 베트남 쪽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정말 제조업에서도 앞으로 대단히 중요성을 점차 확대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 산업이 직접화 클러스트화 되면 이와 함께 당연히 서플라이체인 공급망도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측 하단의 그래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층세라믹 콘텐서의 수입, 중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 그리고 또 필리핀으로부터, 이러한 나라들로 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베트남 이전이 다시 또 일본의 공급자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베트남에서 한일협력, 앞서 이우광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도 거기에 덧붙일 건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기업이 지금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이전하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무역적자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요. 베트남에 대한 무역적자가 늘어납니다. 이미 베트남은 랭킹이 상당히 상회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업을 포함해서 해외기업은 베트남을 대미수출의 생산거점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베트남에서 앞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

는 동남아시아 혹은 다른 시장에 수출을 하는 것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사이에서 완성메이커 그리고 또 기업들의 협력이 늘어납니다. 매칭서비스를 한다거나 중소기업도 사업 기회가 늘어나죠. 또 한편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일의 중소기업이 비교우위를 살리면서 함께 협력해서 진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협력도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일간의 경제관계, 또 한일기업간의 협력을 생각할 때 제3국에서의 협력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제3국에서의 협력은 일본에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한국 또 일본에서 한일기업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최근의 경제 환경을 보면서 한일경제관계 그리고 한일기업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염재호) : 예, 무꼬야마씨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국하고 일본사이의 경제의 어떤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한국에서 국산화 전략 그다음에 대일무역 의존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특별히 베트남 부상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에서 한일경제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우광 선생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나 나중에 토론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큰 주제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장 총장님은 일본 게이오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동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이시고, 일본연구센터 소장, 한일차세대학술포럼 대표 등을 역임하신 일본 전문가 이십니다. 요즘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한일관계 최근의 움직임과 그이후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방금 소개 받은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을 해 주시고 발제를 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악의 한일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일경제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보기가 좋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일관계가 좀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저는 앞에 두 분과 달리, 저는 전공이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주로 정치, 외교, 이쪽 방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콘텐츠는 대강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리뷰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특히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써보았습니다. ‘뉴노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뉴노멀이 정착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이 점

점 정착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노멀의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 아시니까 짧게 리뷰해보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한일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테스트포스를 만들어서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가 12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이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가 좀 결여돼 있다. 그다음에 비밀협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 후에 2018년 11월 달에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징용피해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6월에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일 플러스 일’ 한일기업간의 공동기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겠냐 하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4일 날 일본정부는 3개 품목에 대해서 한국수출규제강화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8월 22일 날은 한국정부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종료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8일 일본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지금 양국간에 여론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올해 6월 달에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추이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나쁘다고 하신 분들이 82.4%를 차지하고, 일본 역시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표현한 분이 8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모두들 그렇게 밝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한국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56.5%이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하신 분도 14.4%에 해당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66%가 ‘변함이 없을 거다.’ 그리고 15%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것은 2016년 12월 28일자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2015년 12월 달에 위안부 합의가 있는 1년 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한국 국민의 59%가 ‘이 합의는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63%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48.8%가 외교적 해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국민의 59.4%가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에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가하는 지금 현재 불참하고 있는 사람이 45.6%,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48%인데, 앞으로 이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앞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66.8%로 불매운동에 참가하겠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안 가기 운동’ 이런 것도 펼쳐지고 있어서 일본신문에도 상당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통계를 보니까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들이 작년에 동일시기와 비교해서 48%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두 자리 숫자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8월 부터 이것이 한 자리 숫자로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 어저께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한일관계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호간에 굉장한 불신이 팽배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외교적인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다떼마에가 그림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일본에서는 그래도 말씀을 잘 안 하시고 다떼미에로 얘기하는 것이 보통인데, 요즘은 일본에서도 다떼마에를 그냥 없애고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떼마에 시절이 그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국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일관계가 굉장히 이데올로기화돼 있다는 것도 최근의 현상이고, 국민감정이 상당히 많이 악화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기업이나 국민들도 알아서 이렇게 자제를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가 폐기가 되다보니까 한미일공조에도 상당히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아직도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현상들이 점점 정착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일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나중에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현상이, 개성이 아주 강한 지도자들이 세계를 지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푸틴, 영국의 브리스 존슨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개성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지도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국내 정치를 우선하는, 최우선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만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특히 심한데, 상대국의 기사가 거의 즉시 번역이 되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보면 한국에서의 신문이 오늘 아침에 신문이 바로 즉시 일본말로 번역이 돼서 일본에 전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치닫는 이런 현상이 뉴노멀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파워가 굉장히 파급력이 있고 전파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트위터로 중요한 정책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트럼프의 트위트를 체크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국익이라고 할 때는 정치지도자의 개인이 생각하는 국익이 국익이 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례의 외교, 거침없는 외교, 예측불허의 외교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다나카이토시 선생님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번에 한일관계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한국은 신뢰를 잃었고 일본은 예의를 잃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기사를 읽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퓰리즘이라든지 지도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외교이다보니까 전문가 조언보다는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기가 정책결정과정에 상당히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중대결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대학에 그레이엄 엘리슨이 최근에 쓴 책을 보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해서 지구상에 과거 5백년간 세력전이, 새로운 신흥국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는, 그러니까 16번 있었는데 12차례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을 분석한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금 대두를 하고 있는데, 이 엘리슨 교수에 의하면 ‘이 두 나라는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후에 굉장히 성장을 하는 고성장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저성장시대가 노멀이 되는 뉴노멀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애널리스트 설먼 같은 사람은 ‘The postwar miracle is over’라고 해서 ‘전후의 기적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일본의 후카가와 유키고 선생님도 ‘더 이상 성장의 시대는 이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뉴비즈니스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경제, 그리고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공유경제가 성장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뉴브랜드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10년전만 해도 없던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가 되었고, 지금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전기자동차, 안면인식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뉴비즈니스의 모델이 대두하고 있는 것도 뉴노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힘이 굉장히 세어지는 파워풀 인디비주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빌게이츠라든지 스티븐 잡스라든지 이름만 대면 아는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엘런머스크,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은 과거에는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밖에 하지 않던 우주산업개발까지 뛰어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저는 여기서 ‘어텀프트 뉴노멀’이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뉴노멀을 시도를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평가구상을 내놔고, 그다음에 평화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놔는데, 이것을 새로운 노멀로 옮겨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베정부도 전후리즘으로부터 체제로부터 탈피를 추구를 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헌법개정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노멀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중에서도 이 ‘노멀’이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와 같이 공

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이 지금 현재 공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동북아시아에는 20세기형 냉전구조가 그대로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대치상황이 계속 되고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대결은 첨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있는 곳이 바로 동북아시아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가 지금 뉴노멀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노멀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20세기형 경제모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까가와 선생님은 특히 한일이 제조업 형태의 사고, 대미파트너십의 우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한일을 생각을 묶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일은 아직도 여전히 트레이드쇼널한 빅네임에 관심이 더 많고 그걸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풀한 개인력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경제형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히 진입을 하기 힘든 그런 규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공유경제에 있어서 택시업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입법과잉,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만듭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무슨 사건만 있으면 바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서 많은 규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그 의원이 1년 동안 법안을 몇 건이나 발의했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규제들이 생기면 국회의원 평가가 높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식민지 지배의 청산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 일에 있어서는 뉴노멀로 옮겨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노멀과 노멀이 충돌을 해서 불안정한 세계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간에는 이렇게 시각차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피해자로서 권리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영원한 피해자이고 도덕적 우위에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징용자 판결은 남은 권리의 사법적인 확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권리가 다 소멸했다, 자꾸 정권만 바뀌면 골대를 옮기는 한국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피해당사자가 납득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가간 합의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간에는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히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화된 정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탄핵이 일어났고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전후체제로부터 탈피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새로운 체제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2015년 12월에 한일위안부 합의를 아베 정부는 국내 반발을 무릅 쓰고 추진해온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65년에 한일협정 대해서도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대법원 징용자 판결을 보면 개인청구권은 살아있고 한일병합은 불법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65년 체제의 부정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현재 구조를 보시면 노멀 체제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뉴노멀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한일관계가 나 빠지면 다시 복원되는 그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복원력을 상실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노멀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복원력 회복을 할 수 있는 잠재요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일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공통적인 견해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일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과연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이나 일본에,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그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원력의 잠재요인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외압적인 요인이라고 했는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외압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일이 추구하고 있는 뉴노멀에 대한 시도,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뉴노멀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복원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새로운 한일관계 인프라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2위권에 들어가는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좀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일본은 이제 식민지배로 인해서 한국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분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의 치유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정부의 영향력 있는 지일파, 지한파의 리더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경제인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간의 관계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지방교류를 활성화해서 좀 더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간에는 긍정적인 기억을 가진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록유산 이것을 한일공동으로 등록한 그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에 성공했는데 이런 비슷한 것을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일이 협력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 한일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과 후쿠오카 사이에서는 부산-후쿠오카 포럼이 14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 주창하는 것은 부산과 후쿠오카를 하나의 경제특구로 만들어 보자는 국경을 초월한 그런 경제특구를 만들

어 보자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14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과 후쿠오카가 경제특구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자유로운 한일FTA가 되기 전에 지역간 FTA를 한번 만들어서 실현해본다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에 가면 ‘유레지오’라고 해서 국경을 초월한 도시간의 연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산-후쿠오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연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간에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벤처기업간의 교류회의도 한번 설립을 해서 공동으로 유니콘 기업을 창출해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염재호) : 예, 감사합니다. 장 총장님께서 뉴노멀에 대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하지만 이전의 노멀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 두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한국하고 일본은 동일한 현상을 보고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일, 지한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을 좋게 이야기하는 한국의 지식인 또는 한국에 대해서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지식인도 있고, 일본에도 똑같이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는 지식인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르면 이전에 언론에도 소개가 됐습시다라는 일본에서 한국을 아는 지한파나 그런 지식인들은 양심적인 지식인이라고 표현하고, 한국에서 일본을 알고 일본을 이해하려고 하는 지식인들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해서, 현상을 보는 것도 관심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공동등재와 같이 사실상은 찾아보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2시간 이내 거리에 일본하고 한국이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부산-후쿠오카 경제 초광역경제권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해볼만한 것이고, 여러 가지 벤처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시다라는 벤처기업이 시장을 넓혀서 한국하고 일본이 같이 한다면 1억5천 이상이 되는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좀 안타까운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모리야마 토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스쿠가대학 정보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쓰이물산에 입사한 후에 1989년에 한국에 어학연수, 2001년에 주재원, 2018년부터는 대표이사로서 세 번째로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해부터 일본기업인 모임인 한국재팬클럽 이사장을 맡아서 한국에 투자한 일본기업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우리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고, 다양한 친목이나 관계를 도모하고 계시면서 활동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은 ‘한국에서의 일본기업의 활동 상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리야마 토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방금 소개받은 한국 미쓰이물산에 모리야마입니다. 저는 또 현재 서울재팬클럽에 이사장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현재 활동상황과 그리고 또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서울재팬클럽의 개요, 활동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미쓰이물산에 대해서, 다음으로 한국에서 일본기업 활동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주한일본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저희의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재팬클럽 SJ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소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재팬클럽은 1997년에, 그전에 존재했던 일본단체가 하나가 돼서 탄생한 한국에서의 최대 일본계 공동체입니다. 규모는 회원기업사는 약 4백개사고 개인회원은 약 1,600명 정도 됩니다. 또 연간 활동 예산규모는 약 10억원입니다.

SJC의 활동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한일친선, 한일사회에 대한 공헌, 양국의 경제관련 발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1년에 한번 회원기업의 의견을 정리해서 한국정부에 규책, 규제의

제검토를 원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또 스터디라든지 연수회 등도 하고 있습니다.

회원기업의 구성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상사, 금융, 수송서비스, 전자, 전기, 기계, 제조, 화학, 생활 관련 등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재팬클럽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한국 여러분들과 함께 한 문화교류활동을 나타냈습니다. SJC 주체사업으로서 한일 가라오케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사진이 가라오케 대회입니다.

일본사람은 한국노래를, 한국사람은 일본노래를 부르는 형태의 콘테스트이며, 예산과 본선이 있고 해마다 상당히 레벨이 높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해도 10월에 예선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저도 도전하려고 했는데요. 알고 있는 노래가 너무 오래된 노래라서 직원들로부터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단념했습니다. 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 예선이니까 SJC 홈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11건은 SJC로서 후원 혹은 협찬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생 스포티치 대회도 있고요. 일본 유학 취업페어 등이 있습니다. 아래쪽 사진은 유학, 취업페어 때 사진입니다. 서울재팬클럽은 이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한일교류를 지원하고 한국 여러분들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공헌활동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한센병시설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이촌동에서 청소활동도 하고 있고 또 아동시설 아이들과의 교류, 또 노인요양시설 방문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계 기업 CEO 라는 이름으로 고려대학교와 카톨릭대학에서 강연회도 했었습니다. 서울재팬클럽에는 사무국이 있는데 스태프는 5명 정도로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서울재팬클럽에 가입한 기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 개인회원들이 주말 등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턴실습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 2015년에 기업 현장인재육성사업으로서 시작한 것이며, SJC 회원기업이 한국인 대학생의 수용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용기업도 실습생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32개사에서 55명이 인턴실습생으로서 참가했습니다. 대학생 입장에서 실재 기업에서 한달 정도 근무하고 일본기업을 알 수 있게 된 귀한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청년 실업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배경에 있어서인지 학생들의 관심도 높고 대단히 높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중 수십명이 실제로 일본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인 한국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서울재팬클럽에서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마포구에 있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고 현재 총 학생수는 328명입니다. 한국 운영에는 일본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19명의 교사를 일본으로부터 파견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래쪽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재팬클럽의 회원수와 일본인학교 학생수의 과거부터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록색선이 일본인학교의 학생수, 빨간색이 서울재팬클럽의 기업 회원수이고 파란색이 개인회원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재팬클럽의 회원수도 학교학생수도 2013년, 14년이 절정이었고,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 경향입니다. 서울재팬클럽도 그렇지만 서울 일본인학교는 학생수 감소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미쓰이물산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미쓰이물산

100% 자회사, 한국에서의 현지 법인으로서 199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미쓰이물산은 1967년에 서울지점을 개점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까지 52년 동안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종업원수는 110명이고, 우측사진은 사회공헌활동으로서 서울중심부에 있는 창덕궁을 직원이 다같이 청소를 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윗단은 올해 한일축제 한마당인데요, 회사부스를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저희 회사 업무 초록색은 영업본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화학, 인프라, 에너지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쓰이물산이라는 회사는 무역과 사업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주요 사업은 수출입이며, 기본적으로는 BtoB타입의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본기업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기업인데요, 몇 개 데이터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SJC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회원기업수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4백개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원기업 모두 한국 내에서 약 5만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기업은 2,850개사인데 이것은 어디까지 실패있는 기업을 파악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본 도요경제신문에 의하면 약 754개사입니다.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어도 서울재팬클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백개사에서 한 천사 정도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그것이 실패가 아닐까 싶습니다.

밑에 표와 그래프는 기존에 일본기업의 투자실적입니다. 우측표는 더 알기 쉬운 것 같은데요, 일본은 제2위의 직접투자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차이도 매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의 실적 봤을 때 일본은 가장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며, 한국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의 감속이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국정부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이 하방수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 2% 전반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2% 이하가 될 것이라는 예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한국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일본기업 입장에서 이것은 역풍이 될 것입니다. 한편 앞서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산업구조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기업의 투자는 제조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생산 거점으로서 성장하고 한국의 입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최근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한국이 강한 걸로 유명합니다.

저는 미국과 유럽 등의 상공회의소와 교류가 있는데 인건비 상승, 노조문제는 일본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외국기업에도 공통적인 과제인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에서의 스마트폰 생산이 유명한데 한국기업의 해외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바와 같이 SJC의 회원기업수와 일본인학교 학생수는 점점 2013년, 2014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따른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최근에 한일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은 있지만 2013년에서 14년이 정점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 전이고 산업구조의 변화도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의 과제인데,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한국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혹은 신규 업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공회의소에 의하면 미국기업은 한국에서 실제 45만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생각해보면 맥도널드, 스

타벅스 등등 미국 서비스산업분야, 대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역시 미국이란 나라는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어떤가요? 주한일본기업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일문제입니다. 정부간에 문제가 존재하고 게다가 역사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한 반일감정이 계속 커져서 문제가 매우 커진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경분리, 투트랙, 일본기업 투자는 대환영한다, 민간교류는 정치와는 다른 차원이며 계속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일본기업의 자산차압이나 현금화 혹은 불매운동, 보이콧 재팬에 따른 불매운동은 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정경분리라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지금 연결돼 있고 연계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각종 교류행사를 연기하고 중지하고, 일부 자치단체에 의한 반일운동, 불매운동은 민간교류지속, 관광객 유치에 찬물을 끼치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소비자들과 직결되는 비즈니스, 즉 비투스 사업을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비투스가 아니라 비투스비 사업이라도 조달을 국산화로, 또 다국산제품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영향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찾는 관광객도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이번 달 한국여행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좀 더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 한국에 가야겠다고 해서 캔슬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일본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컨트리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일본 본사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